

농촌 다문화 자녀들 사회적 배제 '여전'

농진청 실태조사 결과, 사회 불공평 경험 정도가 높아 "차별적 요소 해결, 포용 외연 확대 방안 적극 찾아야"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농촌 다문화자녀의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고, 포용을 강화하는 서비스 방안을 찾기 위해 다문화자녀를 대상으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실태조사'를 했다. 이번 조사는 농촌지역 22개 시군에 거주하는 다문화자녀 30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사회 내부에서 다문화자녀 배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적 배제와 포용 진단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다문화자녀들은 '성인이 됐을 때 취업 기회가 제한될 것(61.89%)'이며, '대학에 진학할 때 차

별을 받을 수도 있을 것(44.53%)'이라고 답했다. 한국 사회의 공평성에 대해서는 절반 가까이가 '평등하지 않다(45.66%)', '공정하지 않다(43.7%)'라고 답했다. 학교의 공평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3명 중 1명이 '나에게 평등하지 않다(35.47%)', '나에게 공정하지 않다(34.34%)'라고 답했다. 주변 사람들의 공평성에 대해서는 26.42%가 '나를 평등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27.56%가 '나를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즉, 학교나 주변 사람보다 한국 사회의 불공평에 대한 경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자녀의 사회적 배제 경험 정도는 학교에서 가까운 친구들과 친밀한 정도가 높을수록 낮았으며, 1일 휴대전화 활용 시간이 많을수록 높았다.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다문화자녀 45.82%가 1일 평균 3~5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3.08%가 '친구들과 연락하기', 30.04%가 '동영상 보기', 13.83%가 '오락게임 하기', 3.56%가 '일반 정보검색'에 활용한다고 답했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양순미 농업연구사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다문화자녀의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우리 사회 내부에서의 배제는 여전히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우리 사회의 차별적 요소를 해결하고 포용의 외연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임실군은 지난 28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일대에 건립된 '임실치즈이용식품 가공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치즈 가공식품 생산공장, 임실에 문 활짝

치즈테마파크 내 준공 치즈돈가스 등 생산... 무항생제 소시지 등 생산 친한F&B가 위탁운영

임실군이 치즈돈가스와 치즈합박스테이크 등과 같은 치즈를 이용한 가공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임실치즈이용식품 가공공장'의 문을 열었다. 임실군은 지난 28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일대에 건립된 임실치즈이용식품 가공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심 민 군수와 진남근 군 의장을 비롯한 관내 기관·단체장과 윤종욱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을 축하하고, 주요시설 및 생산공정을 견학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임실치즈이용식품 가공공장은 당초 치즈와 유제품을 생산하던 시설을 임실치즈를 이용한 2차 가공식품 생산시설로 리모델링했다. 국비와 도비 11억5,000만원과 군비 25억5,000만원 등 총 37억원의 사업비

가 투입, 연면적 999.8㎡에 1층으로 지어졌다. 이 공장에서는 1일 최대 10톤 규모의 치즈이용식품인 치즈돈가스, 치즈합박스테이크, 치즈소시지 등이 생산될 예정이다. 연간 240톤에 약 40억원 상당의 임실치즈 소비로 농가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 시설에 대한 위탁운영은 임실치즈 소시지 등 무항생제 소시지, 육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주)친한F&B(대표 정승환)가 맡는다. (주)친한F&B는 식육가공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 기업으로 2019 IFPA 독일 식육가공박람회 등에서 아시아 최다 메달(17개)을 수상하는 등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까다로운 미국식품의약국

(FDA) 인증을 획득하는 등 시설과 제품에 대해 국제적인 신뢰성을 인정받아 임실치즈 제품의 세계시장 공략에 발판을 마련했다. 군은 최고의 시설의 자랑하는 가공공장을 만든 만큼 대한민국 치즈 원조 임실치즈는 물론 이를 활용한 가공제품까지 전국적인 브랜드로 만들어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치즈이용식품 가공공장 준공을 계기로 임실치즈를 이용한 가공식품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치즈뿐만 아니라, 치즈를 활용한 다양한 2차 가공식품 생산과 고품질 제품 개발을 통해 임실치즈산업의 외연 확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우리 쌀로 만든 빵이랍니다'

농진청, 기능경진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사)대한제과협회와 공동으로 2021 제5회 우리쌀빵 기능경진대회(이하 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는 쌀가루 전용 품종을 이용한 새로운 빵·과자 제품을 발굴해 '쌀빵'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내 제빵·제과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 참가자는 (사)대한제과협회 회원으로 각 지회의 추천을 받은 제과인이자 올해 대회 본선에는 총 36명의 제과인이 참여했으며, 각각 ▲식빵 2종 ▲조리빵 2종 ▲단과자빵(단발빵, 크립빵) 2종 ▲구움과자 소(小)형(마들렌, 파낭시에, 머핀 등) 2종 제품을 선보였다. 출품된 각각의 제품에는 대회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 쌀가루 전용 품종 '가루미'를 전체 반죽 중량의 50% 이상 사용했다. '가루미' 품종은 미리 물에 불리는 번거로움 없이 분쇄기에 넣어 바로 가루로 만들어 쓸 수 있는 건식 제분용으로 개발됐다. 특히 건식 제분의 원천 소재인 분질배유 유전자(fb7)를 포함하고 있는 품종으로, 농촌진흥청은 2018년 국제특허를 출원했고, 2020년에 국내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은 (사)대한제과협회 경기지회 인양사지부 조익종 기능장(주)대오에프엔비 명장사(사)이 수상했고, 농림축산식품부장상과 트로피 상금 1백만 원을 받았다. 조익종 기능장이 출품한 제품은 맛, 모양, 시장성 등에서 만점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수상한 조익종 기능장은 "건강과 맛을 중시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쌀가루를 이용한 빵 등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윤상 기자

"회원과 함께하는 협회 될 것"

임근홍 신임 전전협 전북도회장 취임사

도내 3,000여 전문건설업체를 대표하며 대변하고 있는 대한전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이하 협회) 제12대 임근홍 회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지난 25일 라한호텔 온고을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임근홍 회장은 김태경 전임 회장에게 자의 위상을 높이며, 늘 회원의 편에서 서서 회원과 함께하는 협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임근홍 회장은 1962년 생으로 (유)유립건설의 대표이사로서 재직하면서 전북도회 제9대 운영위원장과 제11대 포장공사사업 운영분과위원장과 도회 제11대 도회 부회장, 중앙회 제11대 대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12대 도회 운영위원을 역임했다. 임근홍 회장의 임기는 2024년 10월 31일까지이다. /김윤상 기자

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늘 회원사와 소통하는 협회, 회원사를 위한 협회를 만들겠다"고 말하고, "보다 굳게 결집된 협회로 거듭나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와 전문건설업계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여 전문건설사업자의 위상을 높이며, 늘 회원의 편에서 서서 회원과 함께하는 협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임근홍 회장은 1962년 생으로 (유)유립건설의 대표이사로서 재직하면서 전북도회 제9대 운영위원장과 제11대 포장공사사업 운영분과위원장과 도회 제11대 도회 부회장, 중앙회 제11대 대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12대 도회 운영위원을 역임했다. 임근홍 회장의 임기는 2024년 10월 31일까지이다. /김윤상 기자

모종 안전 배송 완충제 개발 청년 농산업 최우수 아이디어

부안 변산육묘장 이훈씨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농산업 창업을 주제로 청년들의 참신한 생각을 공모·시상하는 '2021년 청년 농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열고, 최종 11팀을 선정했다. 지난 28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이번 경진대회는 농산업 창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 확산과 농업 청년 인재 발굴 및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해당 경진대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농촌진흥청 일원 및 온라인(유튜브 농촌진흥청 채널)에서 진행된 '2021년 제4회 4-H(사-에이치)중앙경진대회' 6개 부문 중 하나로 진행됐다. 해당 최우수상은 전북 부안에서 육묘장(농장형 변산육묘장)을 운영하는 이훈 청년농업인의 '도시농업을 위한 모종 안전 배송 완충제 개발' 아이디어가 선정되어 농촌진흥청장상과 상금을 받았다. /김윤상 기자

JB문화공간 '이탈리아 르네상스 여행 강연' 성료

로마·베네치아 정태남 교수 피렌체 성제환 교수 강연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이 후원하는 JB문화공간이 총 3회에 걸쳐 진행한 '이탈리아 르네상스 여행' 강연을 성료했다. 지난 10일과 17일, 24일 세 차례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강연은 이탈리아 공인 건축사 자격증을 획득하고 현재까지 30년 동안 한국과 이탈리아를 오가며 문화예술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정태남 박사와 문화예술경제학 르네상스 문명사의 대가면서 피렌체의 빛나는 순간, '당신이 보지 못한 피렌체' 등의 저자 성제환 석좌교수가 청중들과 만났다. 특히 이탈리아의 역사와 문화 예술을 랜선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정태남 박사가 로마와 베네치아를 성제환 교수가 피렌체의 안내자를 맡았다. 정 박사는 1장에서 로마 역사 전년의 흐름과 그 과정에서 탄생한 콜로세움, 아피아 가도, 수도교 등의 건축과 유적들을 소개하였고, 2장에서는 물과 캔의 도시 베네치아를 랜선으로 걸어볼 때 물 위에 도시를 세우게 되었는지부터 꼭 만나야 할 공간들을 안내해 마치 현장에서 베네치아 곳곳을 직접 체험하는 듯한 경험을 선사했다. 24일 마지막 세 번째 강연에 나선 성제환 석좌교수는 피렌체에서 르네상스 예술이 꽃피게 된 원류 및 토착귀족과 신중 상인들 사이의 권력 투쟁, 메디치 가문의 권력을 갖게 되는 과정, 이러한 권력투쟁의 가운데서 아름다운 예술이 탄생하게 되는 배경 등을 이야기하며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현지 맛집과 여행 꿀팁 등을 소개하며 청중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JB문화공간에서는 연말 프로그램으로 오는 12월 2일 재즈가수 말로의 재즈 콘서트에 예정되어 있으며 '티소플리에' 클래스 JB영화감상, JB 클래식 신학 등 정기적인 문화 강좌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금융위기 극복·상호금융 업무개선

전북농협, 실무협의회 개최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지역농·축협의 지속성장을 위한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조합원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상생금융 및 포용적 금융강화를 위해 농협전북본부에서 2021년 하반기 '상호금융 업무개선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농·축협 위원 20여명과 본부 담당 직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2022년 상호금융 업무 활성화 및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주제로 사업추진방향 설정, 역량강화를 위한 특강, 업무개선 실무 협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재호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문제 대응, 언택트문화·비대면 거래·디지털금융 서비스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경쟁심화 등 내년도 사업 환경이 녹록치 않은 만큼 비이차익 증대를 통한 수익구조개선과 자산간 전성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성장전략을 확립하겠다"고 말하면서, "전북농협이 코로나19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견실한 손익구조를 갖춰 최고의 지역대표 금융기관으로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서부지방산림청, 관내 도시숲 조성지 현장점검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권장현)은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조성한 관내 도시숲 조성지에 대해 활용실태 및 유지보수 파악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도시숲의 기능 증진 및 경관개선을 위한 숲 가꾸기 필요여부 및 시설물 안전점검, 기타 도시숲 조성지 활용실태 등 전반적인 도시숲 조성지 관리사항을 점검으로 이루어졌다.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즉각 보완토록 하고 미비점은 순차적으로 조치해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도시숲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